

# 총체적인 시각으로 정보사회 비전제시



경 상 현 (정보통신부 장관)

친애하는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  
정보통신부의 첫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없이 기쁘고 보람에 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특히 이 시간에도 최일선 현장에서 우편과 전기통신 소통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올해가 우리 모두의 뜨거운 정열과 노력으로 정보통신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부의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

2천년대의 시작을 5년 앞둔 지금, 세계의 경제와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상징하는 WTO체제가 어제로 시

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여 선진국 진입의 계기를 마련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세계화의 본격 추진과 지방화시대의 준비, 남북간 화해시대의 개막, 그리고 경제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의 「세계화 4대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내각에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세계화는 제도와 의식, 관행의 개혁을 통해 모든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화과제 추진의 핵심부서로서, 보다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의 관계 법규와 제도와 계획들을 정리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올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첫해인 올해 우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21세기초에 세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부상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할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정보고속도로망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1) 망의 구축과 구축된 망의 활용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창의와 활력이 제약없이 발휘될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 사업환경과 제도·관행을 마련하여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2) 또 구축된 망의 활용으로 국가와 사회전반의 정보화와 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서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강도높게 추진함으로써 각 분야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3)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통신 각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되도록 하여,

(4) 확대되는 시장수요가 동기가 되어 발생할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활동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수준과 산업경쟁력을 조속히 세계수준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연계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추진하는 시스템화된 시책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을 다음 세대를 위한 선진국 진입의 발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현실화하도록 다같이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올

해에는,

첫째로, 이 사업이 국가·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대화되도록 하는 시책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적인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통신망과 앞으로 구축될 정보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정립하고, 현재의 정보통신 사업구조,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구조조정정책, 다가오는 기본통신 다자간협상 결과에 따른 시장개방, 그리고 앞으로의 정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간의 단절없는 조화의 모색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업이 기술력과 경영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고 퇴출할 수 있는 사업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될 수 없고 스스로의 창의와 노력에 바탕을 둔 시장경쟁에서의 승리자만이 오래도록 사업을 영위하여 국민의 사랑과 지원을 받는 정보통신사업의 여건을 마련하되,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국민의 뜻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틀을 정착시키는 일이 우리 정보통신부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국민생활에서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일입니다.

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차세대 기간전산망을 준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산업정보화와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기도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한편으로, 이들 부문이 서로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교교육은 물론 어른들의 평생교육, 농·어업, 상업 등 생업에서의 편리를 가져다 주는

생활 및 생업정보의 제공, 원격지에서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원격의료, 교통·관광·일기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정보에의 접근, 선거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의 제기과 처리 등 정보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수단을 현실화하는데에 우리 정보통신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이용의 규범과 질서확립대책을 마련하여 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정보화기반조성의 근거가 되는 관련제도의 정비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넷째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의 근간이 될 시책을 개발, 시행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개발의 시대는 끝나 갑니다.

이제는 기업이 살아남아서 번영하기 위해 스스로 기술개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기업의 노력을 돕기 위한 시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연구비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 능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은 전국의 모든 기술개발능력을 가진 기관과 개개인을 상대로 한 공모의 형식을 빌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모양의 기득권도 판단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에 정보통신부의 온 정열을 쏟되,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시장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도록 하는 정책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미래의 핵심이 될 멀티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지

원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기초 및 기반기술개발, 수요의 창출, 표준화, 국제협력의 지원, 관련제도의 정비 등 기반조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취약한 소프트웨어, 무선의 이용, 위성통신과 방송 등 분야에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파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용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무궁화위성발사와 종합유선방송의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첨단정보서비스의 혜택이 국민에게 바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도 정보통신부의 중요한 새해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조건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기술력과 경영능력의 우위를 배경으로 해외진출을 기도할 때, 정부의 외교역량이나 차관 제공 등을 통한 지원이 힘을 갖게 되고 실효를 더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APEC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아·태지역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협의하기 위한 통신·정보산업장관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가 세계 정보통신발전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겠고, 진행중인 다자간 기본통신개방 협상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정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본격적인 역할 확충으로 97년부터 시작될 공사화시대에 차질없이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정사업과 금융사업은 우리의 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우리의 우정과 금융사업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97년 초, 우정과 금융사업이 공사로 출발할 때, 그 공사가 세계에서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럽고 훌륭한 회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짜내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개편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우편 종별체제는 우리 종사원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과로 착실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송달기준을 꾸준히 향상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편과 금융업무에서의 전산화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한편, 우체국과 민간부문이 연계된 새로운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등 21세기를 향한 우편·금융분야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

올해는 정보통신부가 발족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는 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름만 바뀐 정보통신부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부처, 새로운 정보통신부의 모습을 바로 올해부터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본부 뿐만이 아니라, 우체국 등 현업관서나 통신사업자, 정보통신분야의 기업체, 관련 학자 등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더욱 친절한 자세, 더욱 성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정보통신부의 탄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정보통신 가족 모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신설된 정보통신부의

일원으로서, 사고체계와 행동의 대전환을 이루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원만하고 긴밀한 노사관계의 전통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명랑하고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상호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 직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전체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짊어졌습니다.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모두 하고 있는 통신서비스를 누구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허가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통신요금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정보통신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여러분의 각오와 분발과 각고의 노력을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 직원일 뿐 아니라, 세계인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책임을 진 정보통신부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치판단 기준은 세계인으로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자신합니다.

오늘 새해 새 아침을 맞아 다짐하는 각오와 결의가 한해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 정보통신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보람찬 한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뜻하는 바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년 1월 3일